

# 부르신 곳에서

멕시코 이지민 김예은 선교사

선교서신 <제 6호>  
2022년 4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15)

사랑하는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문안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 저희 부부는 멕시코 땅에 잘 도착했습니다. 도착 후 정신없이 일주일을 보내고 드디어 지난 4월의 소식들을 정리하여 서신을 보냅니다.

4월은 선교지로의 이주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월 서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4월 초 저희 부부는 주한멕시코대사관에 선교 비자 인터뷰를 보러 갔습니다.



주한멕시코대사관

인터뷰는 생각보다 몹시 까다로웠고, 특히 구비서류 중 하나는 저희가 도저히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었죠. 어느 정도 선교사로서의 연차가 쌓여야 준비할 수 있는 서류였습니다. 대사관의 행정 직원은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 되면 비자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니, 또 멕시코 현지 초청장 등 제출된 서류가 반환되지 않으니, 인터뷰 예약을 다시 잡고 오늘 인터뷰는 접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저희에게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비자가 거절되더라도 무비자로 4월 말에는 선교지인 멕시코로 출국할 생각이었기에 서류가 누락된 상태였지만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멕시코 영사의 질문에 열심히 대답하였지만, 비자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질 순 없었습니다.

10일 뒤, 맡겨 놓은 여권을 수령하기 위해 다시 주한멕시코대사관을 찾았습니다.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여권에는 멕시코 비자가 발급되어 있었죠. 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대원 동기들

출국 전까지 집안의 살림들을 처분하거나 나눔을 하고, 또 가까운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며 그간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였습니다. 소명 따라 부르신 곳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사는 선교사이지만, 본토를 떠나 낯선 땅에 정착해야 한다는 사실은 기쁨과 감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정을 교차하게 했습니다.

선교지로 출국하기 전 마지막 주일인 4월 24일, 저의 모 교회, 이리아름다운교회에서 파송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일진해교회와 함께 저희 가정의 주파송교회이죠.

제가 이리아름다운교회 출신이기도 하고, 또 저희 가정이 교회의 첫 주파송선교사였기 때문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써 주셨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자란 아이가 어느새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주의 종으로 선교를 하러 가니 성도님들 또한 감회가 새로우신 모습이었습니다.



이리아름다운교회 파송예배

사랑하는 교회와 동역자님!

지난 이리아름다운교회에서 파송예배 드릴 때 전했던 답사의 끝 부분을 서신에 담으며 모든 동역자님들께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저희 부부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선교사로서 이제 첫걸음을 떼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이 인정된 자로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모두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붙잡히 여겨 주시기를 구하며 주님의 시선을 따라 사는 가정으로, 욕심 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가정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며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행복한 가정으로, 그 땅의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데 기뻐하며 이름 없이 빛 없이 생명의 복음만을 즐기며 전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을 따라 사는 축복과 은혜가 이 길을 함께 걷는 모든 동역자님들의 삶에 풍성히 임하시길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멕시코를 향하여!

## 기도제목

1. 현지 정착에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게 하소서.
2. 언제 어디서든지 늘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게 하소서.
3. 멘토이신 최승열 선교사님 내외의 영육 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